

예수 부활 대축일

기도서 278면 (A해)

제1독서: 사 도 10, 34a 37-43

제2독서: 골 로 3, 1-4

복 음: 요 한 20, 1-9

순정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반드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성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요한 20, 8-9).

□ 부활절 메시지



“예수부활과 증거의 생활”

교구장 박 정 일 주교

“이날이 주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친애하는 전주교구 교형자매 여러분, 새 봄의 생기가 가득찬 이때에 우리는 다시 예수부활 대축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쁨과 평화

가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같이 중대하고 결정적 의의를 지닌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神性)과 죄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를 명백하게 증명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미리 예언하신대로(마태 20, 19. 마르 10, 34 등)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만에 당신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만일 예수께서 그 예언대로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하느님이라고 믿을 수 없을 것이고, 그분에 걸었던 구원의 희망과 “믿음도 헛된 것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I고린 15, 14). 예수 부활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주춧돌이 되는 결정적 사건인 연유입니다.

그리고 온 그리스도교회가 예수부활 대축일을 가장 장엄하고 성대한 전례로 경축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낸다면 별 의의가 없고 우리 자신들에게 아무 유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를 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강생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 뜻을 터득하고 그것을 실제로 우리 안에 구현시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는 예수부활을 잘 경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요, 은총과 새 생명을 누리게 되는 기쁨입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의 메시지는 죄의 승리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구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의 어두운 것, 묵은 것,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고 밝고, 깨끗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남아 있

습니다. 우리 양심을 밝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어 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과 맞지 않는 것은 깨끗이 씻어 없애버려야 합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 안에도 어둡고 죄스러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윤리 도덕의 부패상은 거의 위험 순위를 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부조리 현상은 우리 국가 사회의 장래를 매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염려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예수부활 대축일을 경축하는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마음가짐과 생활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때 일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불부하심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투철하고 결의에 찬 마음가짐으로 참다운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그리스도 제자들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명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 책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생활의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지 생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증거가 없을 때에 다른 어떠한 방법도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것을 깨우쳐 주고 올바른 길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사회의 부조리와 제도적 악을 고발하고 그 시정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교회와 신자들이 실지 생활로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 효과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실하고 양심적인 생활로 이웃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모든 분당과 교회단체들은 사랑과 일치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성사입니다. 모든 사람과 사회가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치교구설립 50주년의 뜻깊은 부활 대축일이 우리 교회의 대 사회적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우리의 증거 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과 새 생명이 10만 신자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장 주민 모두와 우리 사회 위에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 성직자 묘역 공원화 조성 *

자치교구설정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교구의 기초를 닦으시고, 어려운 시기에 헌신 노력하시다가, 돌아가신 신부님들을 한 데 모시고자, 묘지를 치명자산에 단일화 하여, 공원묘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사망 사제 명단

번호	성명(본명)	사망년월일	묘소	역임본당
1	윤보드네(프란치스코)	1915. 3. 27	치명산	전동
2	구라끄루(말셀로)	1929. 8. 11	"	전동
3	김양홍(스테파노)	1945. 5. 3	"	진안, 전동(감목대리점)
4	서병익(바오로)	1948. 6. 14	"	고산, 함열, 화산, 금산
5	이상화(발도르메오)	1957. 10. 23	"	전동, 김제, 함열, 정읍, 진안, 한들
6	이약술(요셉)	1961. 3. 6	"	전동, 중앙
7	김후성(방지거)	1954. 12. 27	"	전동, 정읍, 수류, 군중
8	김현배(발도르메오)	1960. 4. 30	성체수녀원	화산, 3대 교구장
9	허일록(다두)	1964. 7. 3	"	신태인, 정읍, 함열, 진안, 김제, 화산, 무주, 금산, 대야
10	이태규(요셉)	1969. 3. 23	"	진안, 금산, 여산, 중앙, 부자, 남원, 군중
11	강윤식(분도)	1970. 9. 2	교회묘지	전동, 남원, 김제, 부안, 둔율동, 여산, 삼례
12	이현석(미카엘)	1971. 3. 1	"	전동, 둔율동, 삼례, 진안
13	이기순(도민교)	1972. 4. 11	"	장계, 창인동, 대야, 삼례, 금산
14	김영태(도민교)	1977. 7. 4	"	고산, 수류, 함열, 금산, 화산, 무주, 진안, 삼례
15	송남호(요셉)	1977. 10. 10	"	신태인, 진안, 함열, 고산, 대야, 화산
16	이철연(방지거)	1980. 4. 5	"	용안, 김제, 남원, 장계, 함열
17	김후생(바오로)	1983. 10. 20	"	전동, 둔율동, 화산, 중앙, 창인동, 입실, 남원, 황등
18	김성진(토마스)	1983. 12. 13	"	김제, 군중복무
19	이상호(아오스딩)	1984. 1. 29	"	화산, 용안, 장계, 금산, 둔율동, 순창, 정읍, 부자, 전동, 부안, 신태인, 상관, 삼례
20	김영구(베드로)	1984. 7. 12	"	전동, 수류, 화산, 둔율, 이리, 남원, 함열, 화산, 삼례, 고산, 정읍, 순창, 부안, 팔마
21	서정수(알렉시오)	1985. 1. 26	"	전동, 정읍, 금산, 고산, 둔율, 무주, 신태인, 황등

2. 공원화 조성 계획

- ① 돌 십자가
 - ② 재단
 - ③ 뼈에따상
 - ④ 분묘(석조)
 - ⑤ 비석
 - ⑥ 석축
 - ⑦ 형질 변경
 - ⑧ 잔디
 - ⑨ 석조 계단
 - ⑩ 조경
 - ⑪ 기타
- 예산 : 약 1,000만원 예상

3. 묘지 조성 경비

사망한 신부님들의 특별한 연고를 갖고 계신 분들과 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의 협조로 조성합니다.

연락처 : 교구청 사무처

교구설정 50주년 사무처 전화 5-0041

숲정이 산책



내과 전문의

위 상 양 내 과 의 원

전주시 고사동 2가 1-13

(원주농협·우신폭 앞)

☎ 병원 4-1225 자택 75-0034

위상양(프란치스코) 김병희(글라라)

신부부케·각종 꽃바구니
·생화·화분 도소매

자연 꽃 식물원

최 동 근

유세라피나(금희)

동서관동로

신일군 신경외과 옆

☎ 83-0780

각종 가스렌지
L·P·G 판매

한국 가스 상사

☎ 3-1457

72-0612

김성두(토마스)

이미자(안젤라)

교 구 소 식

1. 재정심의회 : 21일(화) 오전 10시
 2. 교구 헌인법원 : 21일(화) 오후 2시, 장소-사목국
 3. 제 9기 헌인감좌 : 20일(월)~24일(금) 매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4. 사제어머니 모임회 : 20일(월) 오전 11시, 장소-신수당 강덕행 신부님대
※ 1시부터는 정철봉 신부님 모시고 치명자산 순례
 5. 사무장·사무원 소풍 : 22일~23일
 6. 본당 올드레야회장 회의 : 25일(토) 오후 2시30분, 장소-가톨릭센터
※ 전국 올드레야 참가회비 당일 지참 납부바람
 7. 성서자 모임 : 26일 오후 2시, 가톨릭센터, 참가대상-중·고·대·일반
 8. 신앙새신 대피정 : 5월 5일 오전 9시40분~오후 9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참석대상-모든 교우들, 초청장사-최익철 신부님·김진소 신부님·지정환 신부님·박시문 회장님·김발다살 회장님, 참가비-1천원(점심 각자 지참)
※ 오후 7시30분부터 「가라반탈의 성모님」 영화 상영함
- 축! 영명 : 성 안셀모(21일)-김윤섭 신부 축하합니다

10만인 성지순례

1코스 : 순경이→치명자산			2코스 : 여산→천호		
일	요일	담 당 신 부	일	요일	담 당 신 부
19	일	김 동 준 신부	25	토	김 병 환 신부
25	토	나 중 일 신부	26	일	김 준 호 신부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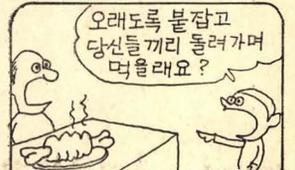
4월은 정녕 잔인한 달인가? 정부 여당의 개헌논의 유보 선언, 그것은 국민의 여망인 개헌의 꿈이 깨지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정부 여당은 원래가 개헌에 대해서는 심한 알레르기반응을 보여오지 않았던가? 그러던 정부 여당이 급선회하여 합의개헌을 운운하면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중대결단이라는 낱말에서 감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무지하지만은 아니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여망인 민주화가 정략의 도구로 쓰여지고, 헌법개정 의 꿈은 기만과 당리의 술수 아래 무참히 깨어졌고, 이 땅 위에는 다시금 최루탄이 터지고 국민의 눈과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게 됐다”는 이 시대의 양심인 김추기경의 심장이 터지는 말씀을 우리 모두 가슴을 치며 새겨야 한다.

사실 그동안 우리는 봄을 기다리는 부푼 기대 속에서 살아왔다. 그렇지만 매서운 꽃샘 바람은 기어이 생명의 역사를 거역하고 있다. 80년의 봄이 그러했고, 금년에도 그러할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것은 “오늘의 정치가 아무리 허무하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하며, 정의와 진실을 단념하는 이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추기경, 부활메시지).

아무리 그 어둠이 칠흑갈다 하더라도 한 개비의 성냥불은 어둠을 밝히는 기쁨이 된다. 다 타서 꺼지면 또 지피고, 그러는 동안 등잔을 장만할 수도 있고, 또 어둠을 쫓는 새벽이 오기 마련이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다. 한 개비의 성냥불이 되어 “우리나라와 민족의 인간화와 참되고 값진 삶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할 자세를 갖추는 일이다. 자, 일어나 가자(요한 14, 31).

요십이 (715) 김병오



□ 1분 명상

“빛을 발산하지 못하거든 빛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도 되라.”

- E. 와튼

명동피부과의원

베소라성서 강의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의 희생이 아니고 자선이다-
(마태 12 : 1-8, 마르 2 : 23-28, 루카 6 : 1-5)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장소 : 센타3층 강사 : 김정원 신부 회비 : 매주 1,500원

박안과 의원

부설 : 전북 콘택트렌즈

팔달로 주택은행 옆

고려당 2층

☎ 82-8666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병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부설 : 물리치료실

원장 신일균(아오스딩)

☎ 병원 @7266

자택 @6417

전주 관동로 전주백화점→다가교 중간지점

전북의료보험조합지정병원

김종환치과의원

신라당 ○

팔달로 ←

○ 주택은행

↑ 1대합실

김종환치과의원

→오거리

○ 조흥은행

원장 김 종 환 (안드레아)

전주시 경원동 3가 50-4

T. 6-7744

주택은행옆 신라당 건너편

북 전주지구 본당소식

(중양)

사제관 5-1713 주임신부 성민호
사무실 5-1711 보좌신부 윤양호
수·유 5-1712 사목회장 엄익도

- ☆ 축! 예수부활: 공식미사-주교님 집전
1. 교구 50주년 기념사업 및 본당 30주년 기념사업
2. 유사세례: 24일(금) 10시
3. 공식미사: 다음주일 오후 4시30분
4. 모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5. 판공성사 누락자: 빠른 시일안에 보세요
6. 사문실 휴무: 22일(수)~23일(목)
7. 불우이웃돕기: 부활절을 맞아 어려운 가정 몇세대에 도움을 드립니다
8. 부활제대꽃 봉헌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 지속적인 성체조배: 끊이지 않게 받으세요
10. 신학생 후원회: 1구좌-1천원(사무실 접수)
□ 지난주 봉헌금: 1,159,750원 교무금: 2,022,200원

(금양)

사제관 3-1653 주임신부 오현택
사무실 3-1653 사목회장 소완영
수녀원 76-0961

- ☆ 축! 부활
1. 금주모임: 꾸리아 회의-오후 2시
2. 차주는 애령주일: 기도회 있음(예규채 지참)
3. 금성회·금암회 월례회: 차주 공식미사 후
4. 꾸르실로 울뜨레아: 차주 공식미사 후
5. 유아세례: 24일 저녁미사 중
6. M·B·W 기초코스 교육: 5월 11일~15일
7. 전신사 성지순례: 6월 14일, 장소-베른성지
8. 미사봉헌 요망: 연미사 생미사
9. 감사: 신축현금, 진성진-5천원, 박영희-5만원, 김중우-10만원, 장성준-1만원, 조정웅-2만원, 이옥금-1만원, 정경순-5만원, 박근남-2만원, 김순옥-10만원, 익명-10만원, 최정채-1만원, 박정배-10만원, 최환열-2만원, 경임순-2만원
10. 금주복사: 나인영·김익창 차주: 이창성·박희정
11. 금주봉헌: 소완영 부부 차주: 허영환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36,160원 교무금: 1,553,000원
신축현금: 615,000원

(떡진)

사제관 72-6107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3-2182 보좌신부 최상범
수·유 72-1222 사목회장 김낙현

- 1. 경축! 예수부활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부활과 바스카의 은총이 온누리라 믿는이들 위에 가득하시길 빕니다
2. 축! 부활영세: 128명 형제자매 새로 탄생
3. 부활 병자성사 및 봉성체: 21일
4. 만나회(직장여성 모임): 22일 저녁미사 후
5. 전주제지·살양사 및 공단내 회사직원 친교미사: 23일 저녁 7시30분, 모두 한자리에 모여봅시다
6. 새 예비자교리 및 단체미사: 5월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준비바랍니다
7. 마리아군단 아치에스(봉헌 사열식): 다음주일 2시~5시 미사와 함께 거행
8. 송천성전 골조공사 완료. 내장공사 착수: 성원 바램 현재 신일종액-181,680,000원(총예산 2억) 추가 신일해주신 L·M단원들께 감사 (6개 pr 합-4,614,000원)

- 9. 금주 본당청소: 그리스도의 모퉁이(26일 오후2시)
□ 지난주 봉헌금: 758,830원 교무금: 897,000원

(동산)

사제관 74-4614 주임신부 권이복
사무실 76-1289 사목회장 한상갑

- ☆ 찬란한 새살, 부활을 맞아 새롭게 시작합니다
1. 예비자교리: 성인-부요일 7시30분, 중고생-토요일 6시
2. 생활교리: 일요일 공식미사 후-예비자 의무적 관심있으신분 참여바람
3. 수요나눔미사에 관심 가져주세요
4. 모임안내: 사목회·애덕회·꾸리아-차주 공식미사 후 구역장회의-30일 7시30분(성당)
5. 본당청소: 금주-자비의 모후, 차주-평화의 별
6. 수녀님 가정방문: 토요일 3시(팀장님은 2시50분까지 성당으로 오세요)
7. 금주 구역미사·모임: 화·금요일 7시30분
21일: 미사-팔5구(이광춘씨 맥), 모임-동1구역
22일: 나눔잔치-동1구역
24일: 미사-동5구역, 모임-일동
8. 금주전례: 해설-손택규, 독서-①이동열 ②박규화
차주전례: 해설-최정진, 독서-①신영우 ②전점순
□ 지난주 봉헌금: 245,530원 교무금: 172,000원
나눔의날 헌금: 37,910원

(순정이)

사제관 76-1320 주임신부 나궁열
사무실 3-7366 사목회장 박해근
수녀원 3-9567

- ☆ 오늘은 예수부활 대축일: 기쁜 부활 맞이하세요
1. 감사: 부활대축일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분께
2. 오월 청소년(중·고): 계란판매(계란 500원)
3. 22일·23일은 사무실 임시 휴무합니다
4. 제대회: 25일(오전 10시)
5. 유아세례·병자봉성체 25일. 사무실에 신청
6. 중·고학생 단체피정: 26일 오전 9시~오후 3시
7. 노인대학 봉사자 피정: 26일
8. 5월반 예비자 모집합니다: 목요일 저녁 신부님 교리 있을 예정입니다
9. 월보 숲머리 원고모집: 20일까지
10. 성전정화사업 신일·남부에 힘을 다합니다
11. 축! 결혼: 오늘 12시
12. 5·6월은 공사판계로 본당에서 혼배 못합니다
13. 미사안내: 증거자의 모후
14. 금주 본당청소: 화-자비의 모후, 토-상야모택
15. 금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김경주·김숙현
봉헌기도-박종윤·교영숙
차주전례: 해설-정주복, 독서-기도-이청수·김시자
봉헌기도-박영근·장정진
□ 지난주 봉헌금: 431,360원 교무금: 504,700원

(인후동)

사제관 74-1929 주임신부 서홍복
사무실 75-6389 사목회장 김병문
수녀원 75-6389

- 1. 축! 부활
2. 부활 삼종기도: 오늘부터 삼위일체 주일까지 합니다
3. 혼인(결혼) 하실분: 1개월전에 본당신부님과 상담
4. 판공성사에 빠진신 분: 미사 전·후에 보셔요
5. 박수녀님 피정: 21일부터 29일까지(이후)
6. 사순절 저금통: 성전건축 성미주머니 가져오세요(다음주부터)
7. 첫영성체만 교리 시작: 28일 오후 4시부터
8. 제대회 월례회: 23일 어머니미사 후
9. 봉헌에 감사: 제대중, 행렬용 십자가, 이동 잡실, 제대 촛대, 부활초대, 부활초
10. 성가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 교리문제 답안지 가져오세요
□ 지난주 봉헌금: 428,530원